

반복되는 노동자 자살, 이제는 멈춰야 할 때



가장 우울한 나라의 노동자

얼마 전 미국의 작가 마크 맨슨은 대한민국을 방문 후 “가장 우울한 나라를 여행했다”라고 밝혀 적잖은 충격을 주었다. 그는 여러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한국이 왜 불안과 우울증, 자살률이 갈수록 증가하고 ‘한국을 최악의 정신건강 위기로 몰아가는 것은 무엇인가’를 언급하며, 복합적인 요인 중 대한민국의 ‘직업 문화’에 주목했다. 그 결과 합숙 문화, 노동환경 등 사회적 압력과 경쟁이 효과적인 결과를 보여줬지만 동시에 심리적

낙심을 유발하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수치심을 느끼는 집단이 많다는 것을 도출했다. 이는 자유와 권한을 잃은 대한민국 사회 속 심신 회복력 저하, 무력감, 관계마저 소외된 노동자의 극심한 정신건강 상태를 내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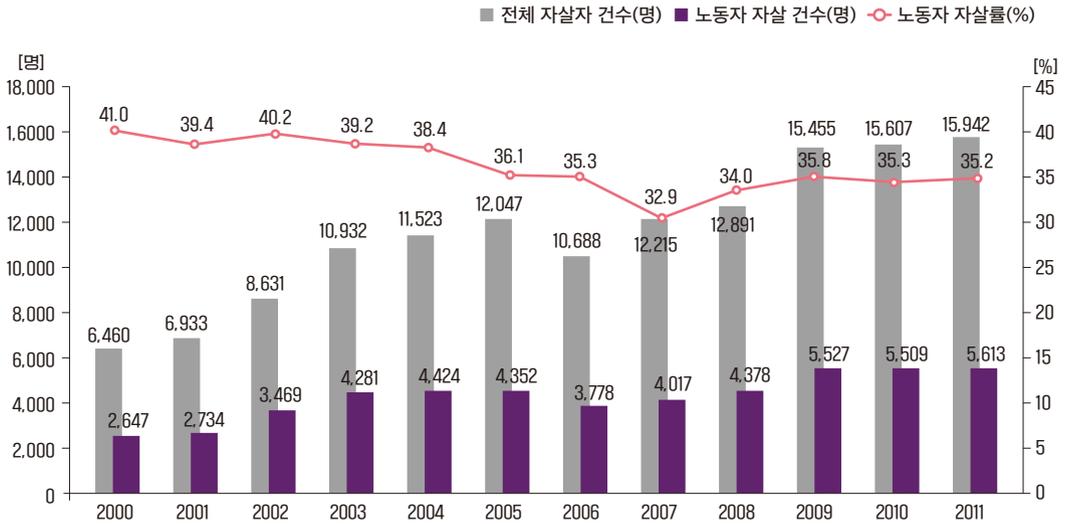
한국인의 우울증 지수는 전 세계적으로 높은 편에 속한다. <정신건강 체계를 위한 새 기준>¹⁾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우울증 유병률은 36.8%로, 조사 대상인 OECD 주요 국가 38개국 중 최상위에 있다. 이 수치는 미국(23.5%), 일본(17.3%)과 비교해서도 월등히 높다.

문제는 정신건강 악화가 일터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자살로 이어지는 것이다. 정신건강 악화요인은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대부분 업무상 과로와 개인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정도의 높은 스트레스 수치를 주요 원인으로 꼽는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직장 내 스트레스와 과중한 업무 강도를 자살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한다. 한국의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노동자의 자살률은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노동자 자살,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노동자의 자살은 장시간 노동과 과중한 업무, 성과 압박, 직무 스트레스, 직장 내 인간관계 갈등 문제, 사내 부당한 요구와 폭력, 권위주의적 조직 문화와 노동 강도, 경제적 고용 불안정성 등 노동자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여러 요인이 존재하며, 최근에는 직장 내 괴롭힘, 직무 스트레스가 많아지면서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진 경우가 증가했다. 이처럼 노동자의 자살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1) OECD <정신 건강 체계를 위한 새 기준>: 정신 질병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의 해결> 2021



자료 : 우중민 <근로자 정신건강증진서비스 모델 개발> 2013, <우리나라 근로자 자살위험도 평가>,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00년부터 노동자 자살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보이나 전체 인구집단에서 노인의 자살이 증가했기에 상대적으로 젊은 노동자 집단이 차지하는 비율이 감소해 보이는 수치일 뿐 사실상 노동자층의 자살이 2배 이상 증가했다.

치부할 수 없는 복합적인 사회 현상임에도 그 원인을 개인의 문제로 돌리며 몰아가는 경향이 강하다. 노동자가 겪는 직무 스트레스와 압박을 사회와 조직의 문제로 결부하지 않고, ‘자기 관리 부족’, ‘나약성’ 등 개인 특성의 문제인 양 국한하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은 노동자가 겪는 심리적 고통을 무시하고, 문제의 해결을 위한 본질을 벗어나게 만든다.

업무자살률 통계조차 정확하지 않다. 경찰청에 따르면²⁾ 2020년 전체 자살자 수는 12,776명으로 그중 492명이 ‘직장 또는 업무상의 문제’로 분류됐다. 반면 2020년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인정을 받은 자살자 수는 87명이었다. 산재로 신청하지 않았거나 신청했어도 인정되지 않은 비율이

82.3%로 나타난 것이다. 사망 원인이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아 산재 신청 시 증거 수집도 어렵다. 지칭하는 용어조차 없다. ‘업무자살’, ‘산재자살’, ‘자살산재’, ‘노동자자살’ 등 문제의 본질을 꿰뚫지 않는 한 이를 지칭하는 낯선 용어만 남아 반복될 뿐이다. 가혹하게도 노동자는 여전히 ‘조금만 더 버티라’고 요구받고 있다.

<자살론>으로 저명한 프랑스 사회학자 뒤르켐은 “자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사회는 분명히 사회적인 원인을 가지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노동자 정신건강의 인식 전환과 적극적인 관리를 뒷받침할 법과 정책의 제도화는 물론 사회 구성원 모두가 노동자 자살에 따른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의 인식 전환이 절실한 이유다. 

2)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최근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통계